

## 「IfSEC 2001」

# 영국 버밍햄 보안장비 전시회를 마치고...

본회 전자산업팀 팀장 이상근

세계 첨단 보안장비 전시회인 IfSEC 2001(The International Fire, Security, Police and Safety & Health Event)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영국 버밍햄에 위치한 NEC(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IfSEC 전시회는 미국의 ISC(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전시회, 독일의 ESSEN 전시회와 함께 세계 최대의 보안장비 관련 전시회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Security Solution, Fire Expo, Safety & Health, Acpo(경찰)전시회 등 4개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부대행사로 전시기간 중 CCTV관련 기술 세미나를 비롯한 12가지의 분야별 세미나가 열리는 유럽 최대의 종합 전문전시회이다.

동 전시회의 주최자는 영국의 United Business Media가 담당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580여개 사가 참가하여 최신 기술의 보안장비를 선보였다.

본회는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첨단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17개사로 한국공동관을 구성,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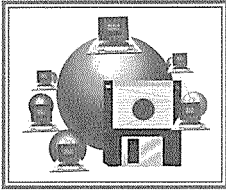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144S/M 규모로 참가하였으나 올해는 KOTRA의 지원을 받고 216S/M로 참가하게 되었다.

공동관은 CCTV를 출품한 이스턴마스텍(주),

(주)트라이너스, 4분활기의 프로스타(주), DVR을 출품한 그루정보통신과 티오엠 테크놀로지, 출입통제 지문인식과 비디오폰을 선보인 (주)케이코하이텍, 카드키의 (주)뉴테크, (주)한광음토의 카메라 렌즈 등 많은 제품을 선보여 전시기간 중 이룬 성과는 계약액이 2,600천 달러, 상담액은 40,000천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많은 바이어들과의 상담(대리점개설, 직접판매,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으로 국내 보안장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향후 전시회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CCTV, DVR, ALARM, 지





< IfSEC 2001 참가업체 명단 >

업체명	대표	출 품 품 목
이스턴마스텍(주)	조청동	CCTV, 카메라
(주)트라이너스	홍세영	CCTV, 줌카메라
프로스타(주)	최유성	4분할기
티오엠테크놀로지(주)	진정후	DVR
(주)케이코하이텍	황문성	출입통제, 지문인식, 비디오폰
(주)뉴테크	김석진	카드키
(주)메닉스엔지니어링	이상수	경보기, 센서
(주)캠트론	임병호	화면분할기
(주)세연테크	김중훈	카메라서버, DVR
(주)KCS	이준일	인터넷보안, 웹서버
(주)폴스타	백승호	감시용카메라, 모니터
(주)한광옵토	노원복	PC카메라용 렌즈
(주)이스턴정보통신	이왕록	DVR
(주)그루정보통신	이연재	DVR
(주)케이티앤씨	권혁섭	보안용CCD카메라
(주)베스코	이희진	적외선감지기, 열선센서
전자진흥회	-	전자산업홍보

문인식장비, 정보보안 등 많은 첨단보안기기가 선보였으며, 과거에는 각각의 기능으로 작용했던 화재경보, 출입자관리 등의 장비들이 올해는 일체화된 제품으로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춘 제품과 DVR 제품의 등장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아날로그시장을 대체하는 DVR제품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세계 보안장비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의 이행과 복합다기능화로 의 기술변화로 안정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안장비와 결합된 홈오트메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의 세계 보안장비 시장은 400-4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CCTV시장은 전체보안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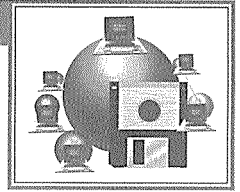


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DVR이 차지하는 부분은 절반정도인 약 15%를 상회하고 그 증가율은 매년 높은 수치로 기존 아날로그시장을 잠식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시장은 당분간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과 디지털화로의 시장이 서로 공존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나 국내의 앞선 기술을 내세운 DVR업체들이 세계시장의 활로개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국내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기존의 CCTV 시장으로서는 많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참가한 한국공동관은 참가업체 모두가 목표했던 상담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바이어들과 상담결과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보안업체들은 세계적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에의 도전과 많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창출에 힘써야겠으며 우리 진흥회와 정부 및 관련단체는 업체들의 시장창출 노력에 발맞추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 「MEDIACAST」

## 런던 케이블·위성방송기기 전시회를 다녀와서

본회 정보통신산업팀 대리 장 광 래

### 1. 개요

위성방송수신기는 국내에 현재 약 100여개의 생산업체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유통시장의 50%를 차지할만큼 대표적인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지난해 약 4억 5,700만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약 150%의 고도성장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6억불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 통신기기 중 휴대폰 다음가는 효자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던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방송수신기 및 케이블장비전문 박람회인 『2001 런던 케이블·위성방송기기전 (MEDIACAST)』은 이러한 위성방송수신기 수출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래 상담의 장으로써 전자산업진흥회(EIAK)가 주관하여 참가한 한국공동관 운영을 중심으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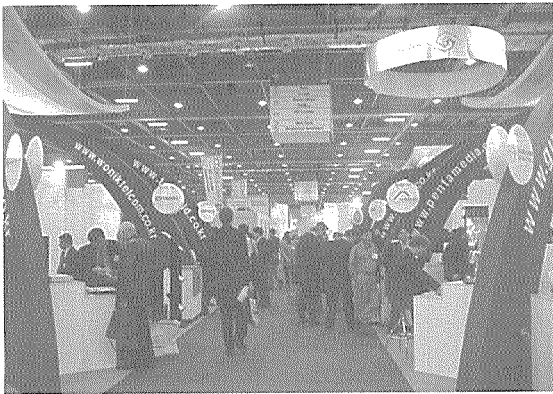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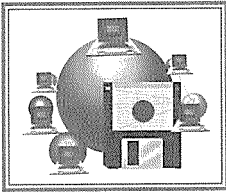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MEDIACAST는 중동 두바이에서 매년 2월에 개최되는 CABSAT전시회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위성방송장비 전문 박람회

로서 위성방송수신기의 최대 수요처중 하나인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을 비롯하여 미주, 아시아 등에서도 바이어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회로 명성이 높다.

런던 외곽 테임즈강가의 Royal Victoria Dock에 새로 개장한 ExCel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15,000㎡의 전시면적에 세계 50개국에서 온 350여개 출품업체들이 참가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위성방송수신기가 전체 출품비중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웬만한 관련 업체는 거의 전부 참가하였다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최신 제품동향 및 기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약 20,000명의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아 관심품목에 대한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이는 등 명성에 걸맞은 전문 전시회로써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산업진흥회(EIAK)주관으로 참가한 한국공동관은 이번 전시회의 유일한 국가관으로서 전시장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시기간내내 바이어 및 참가업체의 큰 주목을 받았을 뿐 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상담 및 실제 계약성과에서 그 어느해보다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 2. 한국공동관 참가현황 및 동향

우리나라 중소 위성방송기기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지난 '99년 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하여 처음으로 참가한 한국공동관은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올해에는 전시면적 297㎡, 관련 중소기업 17개사로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한국관 참가업체 17개사중 16개사가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를 출품하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과시하였고

이중 일부업체는 디지털비디오디스크드라이버(DVD), 디지털지상파방송용수신기 등 디지털컨슈머기기와 디지털 위성라우터, 임팩인코더 등 관련부분품을 출품, 예년에 비해 품목이 크게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가업체중 오성전자의 경우 유일하게 위성방송수신기가 아닌 리모콘을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이채를 띄었는데 이 기업의 경우 리모콘만으로 연간 5천만불이상 수출하여 이 분야 세계 5위안에 드는 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작년까지 무료수신채널용인 FTA(Free to Air)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제한수신장치(CAS)의 일종인 CI(Common Interface)기종과 내장형 CAS제품을 출시하여 기술적으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 기업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위성수신기 분야에서 대만업체들을 월등히 앞서가고 있음을 바이어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으며 아날로그 수신기와는 달리 디지털수신기 시장은 가격보다는 기술경쟁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하겠다.

기타 한국관과는 별도로 휴맥스, 현대디지털테크, 삼성전기, LG이노텍, 서두인칩 등 국내 관련업체 15개사가 개별 독립관으로 참가하여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를 비롯하여 위성수신기 겸용 디지털비디오레코더(PVR) 등 다양한 디지털위성방송장비를 선보여 우리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중 현지 한국대사관 및 KOTRA 무역관의 주요인사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전시제품을 둘러보고 참가업체 관계자의 노고를

### < 한국공동관 참가성과 >

(단위:천불)

품 목	내 역		
	내방 바이어수(명)	상담액	계약액
SVR(analog, digital), 위성수신기겸용디지털비디오 레코드, DVB-T Modulator, 리모트 콘트롤러 등	6,535	310,500	40,250

격려하였으며 주한영국대사관에서는 투자담당관을 현지로 직접 파견하여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산업단지를 시찰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 3. 한국공동관 운영 성과

이번 전시회를 찾은 전체 바이어의 분포를 볼 때 내국(영국)인이 약 40%, 중동 및 유럽내 기타국가, 인도 등 아시아 국가, 미국 등이 60%로 관련업계 전문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이어 가운데 약 6,500명이 한국관을 찾았는데 다수의 바이어가 가격상담 및 샘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참가업체의 관계자들을 매우 흡족하게 했다.



정업무를 대행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업체가 오직 바이어와의 상담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 4. 한국공동관 활성화 방안 및 개선점

이번 전시회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품질경쟁력에서는 뛰어나지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의 중국 및 대만제품의 품질향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부품의 국산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며, 전시회 참가를 거래상담 뿐 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조류 파악과 정보 수집의 유익한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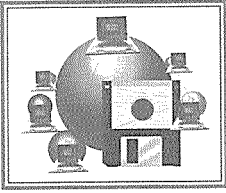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참가업체의 경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단기간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1~2회 참가만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의 안면을 익히며 또한 전시회 참가에 맞추어 신제품을 출품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관 운영적인 측면에서 특히, 부스 디자인의 경우 외국업체에 비해 아직 세련미가 부족하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한국공동관에서는 2,500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상담액 3억 1천만불, 계약액 3천 8백만불을 달성하여 예년에 비해 약 2배의 성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최근의 유럽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국제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밖의 좋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시회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후 바이어의 샘플테스트 기간 등 제품수주까지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신제품은 보통 내년부터 시장 보급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시회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자산업진흥회는 KOTRA의 지원을 받아 업체당 부스임차료의 70%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기금을 2천만원이내에서 용자지원함으로써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에 따른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행



여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국내 장치공사업체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겠지만), 부스장치의 첫인상이 좋다면 즉 제품에 맞는 전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찾을 것이며, 박람회 참가가 단순히 바이어 상담외에도 홍보와 제품 이미지 전달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스 디자인과 제품 진열 개선 등에도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보통 전시회 개막을 전후하여 다양한 홍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관 참가업체에 대한 소개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비롯한 한국관 소개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현지 주최자 및 언론매체에 배포했다라면 한국관에 대한 홍보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 5. 맺음말

앞으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의 확대와 함께 한국관의 좀더 효율적인 운영기법 도입 및 참가업체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는 바이어 상담에만 그치지 말고, 한번 만난 바이어를 자사의 완전한 고객으로 이끄는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하겠다.

전자산업진흥회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위치에 동일 규모(297㎡)로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우리나라 관련기업, 특히 자금사정 등으로 전시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 MEDIACAST 참가업체 명단 >

업 체 명	대 표 자	전 시 품
(주)프리셋코리아	김 근 도	Digital Satellite Video Receiver
디지피아(주)	이 건 수	Digital Satellite Receivers, QPSK/QAM Transmodulator
(주)베이스텍	이 한 국	Digital Satellite Receiver, Satellite PC Card
(주)에이.엠.티	김 진 목	Digital Satellite Receiver
(주)이엠테크닉스	소 민 영	Digital Satellite Receiver
동원텔레콤(주)	정 재 용	Satellite Receiver(Digital, Analog)
(주)케드콤	김 영 수	Digital Satellite Video Receiver
팬택미디어	김 영 진	Digital Satellite Receiver
(주)아리온테크놀로지	이 영 직	Free To Air Digital Satellite Receiver
(주)이노버텍	이 성 웅	Digital Satellite Receiver
(주)글로벌테크	차 회 규	Digital Satellite Receiver
(주)오성전자	유 경 중	Remote Control, Universal remote Control
(주)디와이텔레콤	김 기 근	Digital Satellite Receiver,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
(주)토폰드	이 용 철	Satellite Video Receiver
(주)펜타미디어	김 선 기	IP Gateway over Satellite, Digital Satellite PC Receiver
(주)건잠머리컴퓨터	주 승 환	Digital Satellite Receiver, Automatic Broadcasting System
원익텔레콤(주)	이 용 한	Digital Satellite Receiver